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시급

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 본회의 5분 발언서 주장 “피해지원센터 운영해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주당, 비례) 의원이 전세 피해 지원 조례 제정과 전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2022년 여름부터 인천에서 시작된 전

세 사기가 2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인천시 전세 피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길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전세 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설명

했다. 그는 “경기도는 주거복지센터가 위수탁해 운영 중”이라며 “피해자 결정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 피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도 인천도시공사에서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원활한 계약직 근로자 채용과 운영이 될 것”이라며 “그것 또한 어렵다면 다른 방안으로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센터를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 행정구역 개편을 이뤄낸 저력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의 정무적 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99%에 가까운 예산 불용을 기록한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의 문턱을 낮춰”며 “인천 시민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통 행보 ‘계속’

화성 백미항서 어업인 만나 현장 목소리 듣고 정책 반영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3일 화성 백미항에서 도내 어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어업 관련 현안을 체크하는 것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주민들 대다수가 농어업에 의존해 생활하는 백미리는 지난 2008년 젊은 어촌계장이 어촌체험마을 사업을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한 곳이다. 갯벌체험과 망둥이 낚시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며 인기를 끌었고 해양수산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한 수산물 가공공장은 연 25억원의 매출과 2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다.

또한 귀어귀촌인 유치를 공들인 결과 백미리 전체 어업인 중 무려 30%가 귀어인인 젊은 어촌으로 변신했으며 시행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3일 화성 백미항에서 경기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어업 환경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를 했다.

착오 끝에 성공한 새고막 양식은 든든한 소득 원천이 돼주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경기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새고막 선별장과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어업 환경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섰다.

김남성 한국자율관리어업 경기도연합회장은 △수산물 축제 개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지원 등을 요청했고 김호연 백미리공동체 위원장은 △조개 종패

살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깊이 공감하며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경기도 어업인에게 힘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백미리의 자생력에 감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성공 사례를 널리 알려 도내 어촌이 활성화 되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도내 어업인들과의 심도 있

는 대화를 통해 우려했던 원전 오염수 피해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으로 어업인들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기보다 오늘과 같은 대화시간을 통해 판로 지원 등 진짜 필요한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안 파악과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투어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창 기자

절반 접어든 ‘민선8기’ 당면 과제 제시

정용환 성남시의회 의원 교섭단체 국힘 대표연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환 대표의원은 22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해 연설에 나섰다.

전반기 당대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남시 민선8기’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정 대표의원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

탁,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 오리역 주변 성남의 새로운 벨리 조성 추진, 백현마이스 개발 본격 시동, 분당발전소 현대화 사업 주민 반대 등에 관해 연설했다.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의료원 민간위탁에 대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소아청소년과의 의료공백을 메꾸고 분당 등 산부인과 영역을 흡수해 임신·출산·양육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와 관련 빠른 진행을 위해 분당구청 직제 내 ‘1기 신도시 재건축과’를 설립해 분당구민의 민원 및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설립을 요청했다.

주민 반대 속 추진되고 있는 분당발전소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남동발전, 주민대표 간 TF팀을 구성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휴부지 등으로 분당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리역 일대의 새로운 벨리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성남시의 의지대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인근 법원·하수종말처리장·LH 경기지역본부 부지와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원은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성남이지만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주민의 주거와 미래 먹거리,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개발 방향을 정해 성남시의 5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무 기자

의회 단신

올해 여섯 번째 ‘의정보고서’ 발간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사진) 의원이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양평군의회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매년 의정보고서를 발간, 경기도민은 물론 양평군민들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약 35페이지 분량으로 갑진년 새해 염원을 담은 인사말과 함께 △각종 활동 이력 △양평군 현안사업 및 확보 예산 △소속 상임위 주요 성과 △도정질문 △주요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 주요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매년 의정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며 “양평군의회를 거쳐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발간하는 여섯 번째 의정보고서인 만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는 지역구인 양평군의 주요 현안은 물론 경기도의 회 국민의힘 대표단으로서 다양한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힘써 주신 성과 △도정질문 △주요 입법활동”

김인창 기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안 논의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민주당, 평택3, 사진)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밝혔듯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거점센터 설치의 행정적 절차와 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 이번 정담회에서는 서 의원을 비롯해 경기경제과학기술위원회 평택출장소 김주신 소장,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이순희 팀장, 오버씨스다이렉트 조영선 대표, 강종우 부대표 등이 참석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진행됐다.

서 의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선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버씨스다이렉트 조영선 대표는 “중소기업들은 정부와 광역·지역에 이르는 기업지원 사업이 다양해 한꺼번에 알기 쉽게 안내받길 원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으므로 시간과 인력 낭비가 심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정보 또한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마련에 애써주실에 기대가 크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 정책활동

현장 정책회의 열어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의 우수성 알리는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위원들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더 발전된 의정홍보위원회 활동을 위한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부산시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정책회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의정 홍보물 제작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홍보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용경(민주당, 군포1) 위원장과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부위원장, 최효숙(민주당, 비례) 위원과 오지훈(민주당, 하남3) 의원, 외부전문가 전문가 위원, 당원직 공무원인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제작된 경기도의회 소식지를 비롯해 SNS, 소셜TV, 웹드라마, 만화조례와 각종 홍보콘텐츠 등 의정 홍보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인창 기자

▶ 차별화된 오프라인 광고

LED전광판 / 와이드 / 지하철 / 버스

- 도심 한복판 최적의 위치에 성공적인 마케팅 기획
- 고품질의 영상광고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와이드 조명, 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
- 다양한 옥외광고로 귀사의 성공적인 홍보 기대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이어드립니다.

일간경기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74~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
TEL : 032)508-0006 / FAX : 032)293-5030